

[인트로]

우리가 예수께 빛진 자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뜻과 육신의 욕망대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므로, 믿음의 삶은 내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의 영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빛을 값아야 하는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채의식은 무거운 부담이나 노예적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녀의 효심으로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상속자로 부르십니다. 상속자는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고 고난도 함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1. 먼저, 지난 모임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좋았던 것과 힘들었던 것을 돌아가면서 나누어 보세요.

2. 성경 본문과 아래 설교 마지막 부분 발췌(요약)를 다시 읽어보세요.

22. 그러므로 우리는 17 절의 말씀처럼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진 자의 의무감이나 자녀의 효심을 넘어, 장차 받을 영광을 기다리는 상속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아버지의 일이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은 곧 우리의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듯, 우리도 상속자의 인내로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23. 가나안을 향해 떠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기업을 향해 갔지만, 그 길은 물 없고 거친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을 떠나 약속된 영광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이 힘들 때,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상속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4. 하나님은 멸망할 우리를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빛진 자로 삼으셨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녀와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 같고 두려움과 피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을 수 없는 은혜에 빛진 자이며, 아버지께 효심으로 응답하는 자녀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3. 아래 질문들을 설교에 비추어 생각해 보고 나눠봅시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일 뿐 아니라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오늘 내가 겪는 고난과 책임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바꾸어 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이어받을 아버지의 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내 삶에서 달라져야 할 태도나 선택은 무엇일까요?
 - 나는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주로 피해야 할 문제로 보니까, 아니면 상속자로서 감당해야 할 길로 보니까?
 -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된다”는 말을 내 가정, 교회, 직장,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소망이 지금의 인내를 가능하게 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